

불황에 또 꺾인 '찬미의 꿈'

화순출신 저소득층 민사고 장학생 김찬미 양 후원자 재정악화로 지원 끊겨... 학업 중단 위기



찬미를 말할때면 '봉사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말했다. 찬미양은 다음주 떠날 수 학여행비도 유일하게 내지 못해 홀로 학교에서 지내야 할 형편이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의료 봉사자'를 꿈꾸던 영재 여고생의 꿈이 또 한번 꺾일 위기에 놓였다. 화순제일중 출신인 김찬미(2학년·17)양은 지난해 저소득층 영재학생과 후원자를 연계해 주는 장학제도로 민속사관고(이하 민사고)에 입학했다. 성적 상위 1%의 영재만 입학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인 민사고는 매년 전국에서 성적이 탁월한 저소득층 학생을 2~5명씩 선발해 후원자와 연계시켜 학비 전액을 지원받도록 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장학제도로 민사고에 입학한 찬미양은 입학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첫 시련을 겪었다. 학비전액 지원을 약속했던 후원자의 갑작스런 사업부도로 후원금이 끊겨 학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후원자는 지난해 12월 경기불황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민속사관고에 통보했다. 이창규 민속사관고 법인사무국장은 "장학생 제도로 입학한 학생 중 후원금이 두번이나 끊긴 학생은 찬미양이 유일하다"면서 "찬미양이 워낙 똑똑한 영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돕고 싶지만, 내규로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다 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수업료를 받지 못한 학교측은 현재 이 같은 사실을 찬미양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찬미양이 지난해 후원자와 다시 연결된 뒤 자신이 받은 '나눔의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고 각종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욕적인 학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민사고 안상준 교사는 "찬미는 천성이 착하고 공부하는 등 의욕적인 학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민사고 안상준 교사는 "찬미는 천성이 착하고 공부하는 등 의욕적인 학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민사고측은 "학교규칙 때문에 수업료 미납이 계속된다면 찬미양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개교 이래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찬미양의 후원을 희망하는 독자가 민사고(033-344-0233) 이창규 법인사무국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2 금품선거 중점 단속"

來光 이귀남 법무인터뷰



"기초질서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장흥 출신인 이귀남(59) 법무부장관은 5일 광주고통정보산업학교(구 소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에 취임한지 150일이 지나서야 고항에 오니 소감이 남다르다"며 "고항에 부끄럽지 않는 소신있고 공정한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금품 및 거짓말선거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이달 21일부터는 야간 비상근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잇달린 판결 등에 따른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니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며, 판결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공천현금 수사를 놓고 '편파 수사'라는 시각이 많은데, 서청원 전 대표가 구속 중인 것을 포함해 진박연대에서는 여러 명이 사법처리됐고,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구속된 바 있다"며 '표적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공천현금에 대한 수사가 '6·2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공천현금 수사는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2선거의 경우 전국의 당선자가 3천960명에 이르는 만

이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소년원에 수용 중인 조모(18)군과 1대1 결연을 맺고 각종후원을 약속했다. 현재 법무장관이 소년원 학생을 상대로 결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또 소년원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가수 비와 피겨 스타 김연아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경생 의지를 북돋웠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구 '금은방 폐강도' 피의자 1명 추가 검거

지난해 4월 광주시 남구에서 발생한 '금은방 폐강도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청은 금은방 강도사건 용의자 4명 중 1명인 노모(56)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청에 의해 최근 붙잡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밤 8시에 남구 구동 김모(48)씨 형제의 금은방에 침입,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시가 3억원의 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4명 가운데 현재 이모(52)씨만이 미검 상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원룸 20대女 흥기에 찢려 숨져

5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S원룸 4층에 사는 김모(여·26)씨가 왼쪽 목을 흥기에 한 차례 찢려 숨져있는 것을 직장 동료 오모(3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돼 찾아 갔더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미혼인 김씨는 이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하남공단에 있는 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희망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광주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기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선포

민·관·군 1천여명 참석 "선진교통문화정착 노력"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는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관·군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선포식을 갖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양근 운동본부 대표회장, 안창호 광주고검장, 길태기 광주지검장, 이승복 광주경찰청장, 모종화 31사단 선포식을 갖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 장관은 격려사에서 "광주의 선진교통문화 운동을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KIA타이거즈 이종범 선수를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캠페인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 선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기원하는 사인불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검 중수부에 첫 女검사

광주출신 박지영씨



사정수사의 사령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처음으로 여검사가 배치돼 화제다. 주인공은 박지영(40·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지난 4일 인사 이동에 따라 중수부의 첫 여검사가 됐다. 광주 출신인 박 검사는 광주수파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내부에서도 엘리트 검사로 꼽힌다. 과거 '금녀(禁女) 지대'로 인식됐던 공간, 특수 등 부서에 최근 여

검사들이 배치돼 활약하고 있지만, 중수부에 여검사가 배치된 것은 박 검사가 처음이다. 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박 검사는 여검사로서는 유일하게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 1과에서 근무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재직 시절에는 '검찰문화 개선'을 위한 여성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연구작업을 하는 등 검찰 내부의 '여풍(女風)'을 주도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6분, 해질녘 18시 32분, 달돋이 1시 1분, 달질 9시 59분. 경기(驚蟄) 아침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비 4/9°C, 목포: 흐리고 비 4/8°C, 여수: 흐리고 비 6/8°C, 완도: 흐리고 비 5/8°C, 구례: 흐리고 비 5/9°C, 애남: 흐리고 비 5/9°C, 장흥: 흐리고 비 5/8°C, 고흥: 흐리고 비 5/9°C, 순천: 흐리고 비 6/9°C, 영광: 흐리고 비 4/8°C, 진도: 흐리고 비 3/8°C, 전주: 흐리고 비 5/9°C, 남원: 흐리고 비 4/9°C, 흑산도: 흐리고 비 4/6°C. (오전) 바다: 풍향 북~북동, 파고 1.5~2.5m, 체감온도 낮음, 동피수 낮음, 뇌졸중지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북~북동, 파고 2.0~3.0m, 목포: 06:07 11:05, 여수: 00:33 06:33. 3월 7일~12일 날씨: 4/9, 3/9, 3/7, 0/6, -1/8, 0/14.

신종플루 임신부·태아 동시 사망 있었다

지난 1월 전남대병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동포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숨진 사실이 사망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다. 역학조사 결과 이 임신부가 '신

종플루 사망자'로 최종 판명된 신종플루로 인해 임신부와 태아가 숨진 국내 첫 사례다. 5일 순천보건소 등에 따르면 임신 7개월이던 김모(여·31)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폐렴 증상을 보여 순천 H 병원을 찾았다.

각혈과 폐 손상 증세까지 있었던 김씨는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이틀 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월 21일 태아와 함께 숨졌다. 사인은 급성 호흡근관 증후군, 선행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3월에 웬 장마? ... 알고보니 '엘니뇨 모도키' 탓

3월 들어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광주지역에 13.3mm의 비가 꾸준히 내렸다. 기상청은 "지난 겨울부터 최근까지 비가 많이 내린 이유를 '엘니뇨 모도키' 현상에서 찾고 있다. 엘니뇨 모도키의 영향으로 서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발달하면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온난 다습한 기류가 한반도

로 유입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오는 날이 많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서태평양에 있는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일반적으로 제주도를 지나갈 지기 없이 광주·전남까지 북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엘니뇨 모도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휴일인 7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우량은 5~20mm.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엘니뇨 모도키=기존의 엘니뇨보다 더 많은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새로운 현상. '갈으면서도 다르다'는 일본어 '모도키'가 시사하듯 엘니뇨 모도키는 기존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태평양 적도대 동부는 물론, 서쪽까지 확대돼 동부까지 수온을 높인다.

채팅으로 만난 친구 집 텨다 '덜미'

○경기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광주 한 네티즌의 집으로 찾아가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청은 5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의 집에 찾아가 몰래 귀금속을 들고 나온 김모(16·경기도 안양시)군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김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강모(여·50)씨의 집에서 강씨의 아들 A(18)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안방 서랍안에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광주에 사는 사람을 모셔야"라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대화를 요청한 A군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알아낸 뒤 광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